

연중 제 25 주일:

2016 년 9 월 18 일 (다해)

# 산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http://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6 권 34 호



주일 미사: 오전 9 시 (한국어, 영어), 오전 10 시 30 분(영어), 오후 12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평협회장: 박영우 니콜라스 (661-703-5957)

성당사무실 시간: 월(오후 2-6 시), 화.수요일 (오전 9:30 시-오후 8 시). 목 (오후 2-6 시),

금요일(오전 9:30 시-오후 6 시).

미 사 성 가	입당 ( 287 )	봉헌 ( 215 )	성체 ( 166 )	파견 ( 286 )
<b>2016 년도 구역 및 구역원 명단</b>		<b>성소를 위한 기도</b>		
<p><b>1 구역 :</b> 유 마리아(구역장), 이 바실리오, 배 실비아, 배 안젤로, 양 유리안나, 오 베드로, 오 루시아, 유 요한, 손 아놀드, 손 잼마, 최 요안나, 최 마태오</p> <p><b>2 구역:</b> 이 마틸다(구역장), 이 그레이스, 장 글라라, 이 요한, 이 요셉, 이 데레사, 전 제노베파, 김 안드레아, 김 마르타, 데니엘 한, 사비나</p> <p><b>3 구역:</b> 김 헬레나(구역장), 박 니콜라스, 박 마가렛, 김 마론, 김 데오도라, 이 바오로, 이 빅토리아, 허 루카, 배 시몬, 김 글라라. 이 율리안나.</p> <p><b>4 구역:</b> 김 유스티나( 총 구역장), 홍마르코, 홍아네스,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이 글라라, 이 안드레아, 이 안젤라, 정 바오로, 정 릅타, 김 유수티노, 김희정, 고순영.</p>	<p>○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p> <p>●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p> <p>○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p> <p>●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p> <p>○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p> <p>●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p> <p>◎ 아멘.</p>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9/18	박 니콜라스	이 바오로, 김 헬레나	박 다니엘
9/25	이 마틸다	이 요한, 김 유스티나	성인 복사
10/2	유 요한	이 바오로, 김 헬레나	박 다니엘
10/9	이 마틸다	이 요한,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10/16	박 니콜라스	이 바오로, 김 헬레나	박 다니엘
10/23	이 그레이스	이 요한, 김 유스티나	성인 복사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주일미사	봉헌금	2차 봉헌	교무금
9/11/16	\$338	0	\$830

새 신자 교육 9월 부터 시작

9월 4일부터, 한인공동체 새 신자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 하였습니다. 주위에 새 신자 교육을 받아야 되실분이나, 관심이 있으신분들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박 마가렛 자매님께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기도' 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이나 기타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모든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성당에 처음 나온사람처럼

이화은 요안나 시인

천주교 신자들의 심성을 빚댄 풍자 한 토막이 오랫동안 잊혀 지지 않습니다. 누구의 안내 없이 성당에 처음 나온 한 분이 어색한 미사를 마치고 성당 문을 나서는데 마침 비가 왔다고 합니다. 미리 우산을 준비해 온 신자들이 삼삼오오 빗속으로 사라지고 우산이 없어 난감한 그분 앞에 함께 우산을 쓰자는 분이 계셨답니다. 역시 천주교 신자는 다른 것 같다고 감사의 말을 드렸더니 그분 왈. 자기도 오늘 성당에 처음 나온 사람이라고 하셨다는군요. 조용하고 겸손은 종교라는 미명 아래 무심하고 인색한 우리 신자들을 정확히 꼬집은 뒷담화겠지요.

바로 곁에서 비 맞고 계신 예수님을 두고 우리는 우산 속 세상에 안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다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산 속의 비 맞지 않는 세상에 갇혀 우산 바깥의 광활한 세상을 모두 포기하는 셈이지요. 성당에 처음 나온 사람! 이 첫 마음에서 너무 멀리 와 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전에 다니던 성당 교우들과 헤어지고 낯선 성당으로 전입하던 차에 누가 그러더군요. 이럴 때 쉬어가야 한다고요. 말인즉 레지오 활동을 이럴 때 쉬지 않으면 평생 설 수가 없다고요. 아무도 내가 레지오 단원인 걸 모르는 곳에서 함께 활동하자고 권유하는 사람도 없으니 숨기에 안성맞춤인 시기라는 얘가지요. 귀가 달콤한 그 말에 서슴없이 활동을 중단하고 잠시! 쉬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30년이었습니다.

선거의 문구가 생각났습니다. ‘한순간에 혹은 간단’ 처럼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살짝 미사 참례만 하는 일이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초상집과 냉담자들을 찾아다니는 일도 없으니 시간이 남아 돌아가는 듯했지요. 그러고 어느 순간 돌아보니 그 남아 돌아가는 시간은 제게 빈손만 남겨주었습니다. 보람도 기쁨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한순간에 혹은 갔습니다. 어느새 활발하게 활동할 나이도 지나버렸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공동체 소식

교무금 납부 요망

교무금은 교회유지를 위하여 신자들이 의무적으로 바치는 헌금이며, 그 기원은 구약의 십일조에서 유래 합니다. 교무금에 대한 의무는 열심자와 냉담자, 성사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의 구별없이 모든 교우에게 부여된 의무이므로, 성실히 신자의 의무를 수행하시어, 교회유지와 사업에 도움을 주시고, 주님의 은총 또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친교실 탁자와 의자 정리

친교실에 친교전과 친교후에 탁자와 의자를 준비했다, 정리하는것에 형제, 자매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식사시에 필요한, 탁자와 의자는 본인들이 같다 피시고, 식사후에도도 본인들이 사용한 의자와 탁자는 본인들이 원위치 시키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가을 피정 계획

지난주에 성경공부(성서통독)가 성황리에 시작 되었습니다. 열심히들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동안의 여러가지 사정상, 우리 공동체가 2016년에 피정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정에 관하여,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구역장이나, 총구역장에게 전하여 주시면, 2주간의 의견 수렴기간을 거쳐, 2016년 가을 피정계획을 확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은의견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한인 성당 골프 대회, 10월 2일, 12시 30분. River Lakes C.C.

매년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한인공동체 골프대회를 10월 2일 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활기차고, 즐거운 골프대회를 위해, 준비위원으로 일하실, 자원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관심이 있으신분은 이 요한 총무님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소공동체(구역)모임 안내

오늘 친교는 본관 친교실에서 있겠습니다. 친교후에 소공동체 모임이 있으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안나야 너 어디 있지?”

수백 번을 부르셨을 텐데 한 번 귀 막으면 들리지 않지요. 보이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고 첫성체를 하던 그 첫 마음에서 한참 멀어져 곁에 비 맞는 예수님을 두고도 모른 척 혼자 우산을 쓰고 가는 매끄러운 천주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성당에 처음 나온 사람'으로 돌아가기 위해 나는 평생을 들고 또 돌았던 셈입니다.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선뜻 나서지 못하는 내 신앙 성적표는 에덴동산의 아담처럼 부끄러운 알몸입니다. 그러나 내 생애 처음으로 사랑한 분이 그분이시니 예수님은 아무래도 내 첫사랑이 맞겠지요? 이런 어설픈 고백에도 주님은 안 속는 척, 몇 번이고 또 속아주시겠지요?

(교리 상식)

성체 분배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요? 여자는 할 수 없나요?

정규적인 성체 분배자는 주교, 사제, 부제입니다. 그러 나 지금은 수도자와 평신도도 성체 분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정한 성체 분배권을 받을 수 있는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종직, 독서직을 받은 자, ② 수사, 수녀, ③ 40세 이상의 남녀 평신도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남자 평신도뿐 아니라 여자 평신 도도 성체를 분배할 수 있습니다.

--	--